

君臣佐使에 대한 연구

이태경 · 강정수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Prescriptions about Monarch(jun) · Minister(chen) · Adjuvant(zou) · Guide(shi) Theory

Tae Kyoung Lee, Jung Soo Kang,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For countless time, many have been made in our oriental medicine. To understand such prescription and to use, we must study the monarch(jun), minister(chen), adjuvant(zou) and guide(shi) theory that is most of the prescription structure principle's the basis. The monarch is the center of the prescription. Two kind is greatly in the method to select the monarch, in the prescription. One method is that a medicinal herb of the high class of medical herb of the Sennong's Classic becomes the monarch, and the other method is a medicinal herbs which there is most many quantity in the prescription becomes the monarch. Additionally, a medicinal herbs name of a prescription name can become the monarch. The minister assist the monarch and this is a criteria of the prescription grouping with the monarch. The minister has close relation with the monarch. The adjuvant helps the monarch and the minister nature of drug or restrains. So this makes the prescription effectiveness act accurately. The guide does the activity to help the harmony of the prescription and the activity to help the prescription to act in correct place. If we understand the monarch, minister, adjuvant and guide theory well, we have some advantage. The interpreting of the prescription comes to be easy. and, an application range of the prescription is enhanced.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medicinal herbs comes to be easy in the prescription. Finally that theory will be used for the principle to make new prescription..

Key words : monarch(jun), minister(chen), adjuvant(zou), guide(shi)

서론

韓醫學에서 方劑란 질병의 증상을 변별하고 病因을 찾아 치료법을 정한 후에 적합한 藥物을 선택하고 배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미 3천 년 전부터 藥物의 七情과 氣味를 고려하여 다양한 약물을 혼합하고 조합하여 方劑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¹⁾²⁾. 현존하는 것으로는, 『黃帝內經』에 13方이 있다. 漢代에 와서 張仲景에 의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379方이 만들어져 그 처방의 수가 늘어났으며 이것이 立方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處方은 많은 발전을 하여 宋代 『太平聖惠方』에는 16,834方, 『聖濟總錄』에는 20,000餘方이 실려 있고, 明代 朱橚의 『普濟方』에는 61,739方이 실려 있어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³⁾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方藥合編』의 處方의 수만 해도 560餘方이다. 이렇게 무수한 處方을 보면서 우리는 處方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같은 주치증에도 무수한 처방이 있으며, 한 처방을 다양한 증상에 사용하기도 한다. 무수한 가미방이 존재하여 고민을 한 층 더하게 한다. 이렇게 많은 處方을 적절히 사용하려면 각각의 處方을 연구하고 분석해야한다. 이 때 가장 어려운 점이 處方을 바라보는 기준이다. 어떤 기준으로 處方을 분석할 것인가? 處方을 살피는 기준이 최초로 제시된 곳은 『黃帝內經·素問』, 『至真要大論』이다. 여기에 君臣佐使와 七方⁵⁾이 설명되어 있다. 七方은 方劑를 종합적으로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bssoo25@dju.ac.kr, · Tel : 042-280-2616

· 접수 : 2007/04/24 · 채택 : 2007/06/04

1) 『漢書·藝文志』 醫經七家에 “醫經者 原人血脈經骨髓陰陽表裏 以起百病之本 死生之分 而用度歲石湯火所施 調百藥齊和之所宜 至齊之得 猶慈石取鐵 以物相使. 拙者失理 以瘡爲劇”이라 되어있고, 經方十一家에 “經方者 本草石之寒溫 量疾病之淺深 假藥味之滋 因氣感之宜 辯五苦六辛 致水火之齊 以通閉解結 反之於平. 及其宜者 以熱益熱 以寒增寒 精氣內傷 不見於外 是所獨失也 故諺曰 有病不治 常得中醫”라 되어 있다.

로 보는 최초의 方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로 汪昂의 『醫方集解』에 病因에 따른 二十二種²⁾의 분류법이 있다³⁾. 또한 北齊의 徐之才가 藥味에 근거하여 만든 十劑가 있다⁴⁾. 그리고 張景岳의 八陣法이 있는데, 이것은 군인이었던 張景岳이 軍隊의 陣法을 응용하여 정리한 方法이다. 이러한 方劑 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君臣佐使의 개념이다. 處方을 세움에 理法을 모르고 君臣佐使에 의거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할 만큼 君臣佐使의 法은 立方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處方을 이해함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⁵⁾. 우리는 君臣佐使를 기본으로 處方을 살펴야 그 處方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君臣佐使의 이론의 전개과정을 文獻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라 君臣佐使를 정리하여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君臣佐使의 略史

君臣佐使는 고대의 君主政治形態를 處方의 藥物構成에 적용한 것이다. '君'은 『說文解字』에 "君 尊也. 從尹."이라 하였고, '尹'은 '임'이라고 하였다⁶⁾. 즉, '君'은 통치자를 의미한다. '臣'이란 글자는 "牽也 事君者 象屈服之形⁷⁾"이라 하였다. '臣'은 전쟁포로 중 특히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점차 군주시대로 오면서 관리를 칭하는 말로 변한 것이다⁸⁾. '佐'는 돕는다는 의미로 관직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왕이나 관료를 돕는 하급관료들의 이름에 사용되었다⁹⁾. '使'는 『說文解字』에 "使 倫也. 從人 吏聲."이라 하고, 倫은 "小徐本作 令"이라 하며 또한, 『詩經·秦風·車鄰』에는 倫은 "寺人之令"이라고 하였다¹⁰⁾. 관직이름에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漢代에 副丞相으로서 丞相을 보좌하는 관직이 御使大夫¹¹⁾, 국가의 재정관리가 治粟內史, 수도를 통치하는 사람이 內史, 지방 감찰직이 刺史라고 하였다¹²⁾. 주로 관리 직이라 하겠다. 즉, 君은 君主를 뜻하고, 臣은 君 아래의 관료를

칭하며, 佐는 임금이나 관료들을 보좌를 담당하는 관직으로 볼 수 있고, 使는 관료를 보좌하거나 주로 실무에서 관리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제도는 內經時代부터 處方構成에 도입되어 사용되어 왔다. 君臣佐使理論의 전개되어온 과정을 文獻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黃帝時代에 桐君이라는 臣下가 三品の 藥物로 君臣佐使를 삼고, 藥別錄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한다¹³⁾. 현존하는 것으로 黃帝內經의 「素問·至真要大論」에, 病을 주관하는 것이 君이고, 君을 輔佐하는 것이 臣이며, 臣에 응하는 것이 使라 하였다¹⁴⁾.

『神農本草經』에도 君臣佐使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黃帝內經과 사뭇 다르다. 『神農本草經』에는 "藥有君臣佐使 以相宣攝. 合和者 宣用 一君二臣三佐五使 又可一君三臣九佐使也"라 하고, "上藥一百二十種爲君 主養命 以應天 無毒 多服久服不傷人 欲輕身益氣不老延年者 本上經. 中藥一百二十種爲臣 主養性 以應人 無毒有毒 斟酌其宜 欲過病虛羸者 本中經. 下藥一百二十種爲佐使 主治病 以應地 多毒不可久服 欲除寒熱邪氣 破積聚 有疾者 本下經. 下品藥性 專主攻擊 毒烈之氣 傾損中和 不可常服 疾愈則止¹⁵⁾"라 하였다.

『神農本草經』의 說을 內經의 관점과 비교해 보면, 君藥을 內經에서는 "主病"하는 것이라 하고, 『神農本草經』에서는 "輕身益氣 不老延年"하는 것이라 하였다. 『神農本草經』에서는 오히려 主治病하는 藥은 佐使藥이라 한다. 『神農本草經』은 內經과 君臣佐使를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듯하다.

『神農本草經』의 君藥을 보는 관점은, 道家에서 추구하는 延年益壽하고 不老長生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抱朴子』에 보면 돌을 먹고 신선이 되는 내용이 있다. 『神農本草經』上品에 돌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깊어 보인다¹⁶⁾. 또한 『世眞仙體道通鑑』에도 藥物을 섭취하면서 수행한 仙人들의 이야기가 나온다¹⁷⁾. 이러한 道家의 服餌하는 내용과 『神農本草經』의 藥物에 대한 上中下品の 나누는 기준이 상당히 흡사하다. 이로 볼 때, 『神農本草經』은 藥을 보는 기준이 服餌之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¹⁸⁾ 君臣佐使를 나눈 것도 이에 준한 것이라 여겨진다.

成無己는 『傷寒理藥方論』에서 『神農本草經』의 說을 언급하면서도 君臣佐使는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疾病과 상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⁹⁾. 金元時代로 넘어오면서 經驗方 중심에서 內經의 본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의학의 主流가 바뀌는데, 『神農本草經』의 說이 대체로 부인되면서, 張元素·李杲·王好古등에 의해 君藥의 개념을 중심으로 君臣佐使의 의

2) 『湯液經法』이라는 方劑理論 전문서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三十二卷으로 구성된 최초의 方劑 전문 서적이거나 망실되었다.
3) 韓醫科大學 方劑學教授 共編著: 方劑學, 永林社, p22, 1999年
4) 姜惠永: 處方命名에 대한 小考: 方劑合編의 醫方活套를 中心으로, 國光大學校, 1987年, p63-68
5) 大·小·緩·急·奇·偶·復
6) 補養 發表 瀉吐 功裏 和解 理氣 理血 祛風 祛寒 清暑 利濕 潤燥 瀉火 除痰 消導 收澀 殺蟲 明目 癰瘍 經產 急求
7) 韓醫科大學 方劑學教授 共編著: 方劑學, 永林社, p22, 1999年
8) 十劑는 宣·通·補·泄·輕·重·滑·澀·燥·濕으로 '十劑'라는 이름은 宋代 成無己가 傷寒明理論에서 처음 붙였다.
9) 陳翹祖: 中醫治法與方劑, 人民衛生出版社, p94, 1975年
10) 王貴元 著: 說文解字 校箋, 學林出版社, p54, p121, 2002年
11) 王貴元 著: 說文解字 校箋, 學林出版社, p125, 2002年
12) 이돈주: 한자·한어의 창으로 보는 중국고대문화, 태학사, p56-57, 2006年
13) 백제시대에 지방의 토호인 방령을 도와 일을 맡아 보던 지방관의 이름이 放佐, 고려시대에 尙藥局의 正九品 벼슬이름이 醫佐였다. 중국에서는 왕을 떠받칠 인재를 三王之佐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佐'라는 글자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4) 王貴元 著: 說文解字 校箋, 學林出版社, p335, 2002年
15) 御史大夫와 御使大夫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16) 니시지마 사다오 지음, 최덕경 임대의 옮김: 중국의 역사 진한사, 도서출판 혜안, p116, 2004年

17)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桐君 黃帝臣也. 多識草木性味 定三品藥物 爲君臣佐使 儀「採藥對」四卷 「採藥別錄」十卷.
18) 「素問·至真要大論」帝曰 善. 方制君臣, 何謂也 岐伯曰 主病之謂君, 佐君之謂臣, 應臣之謂使, 非上下三品之謂也.
19) 馬繼興 主編: 神農本草經輯注, 人民衛生出版社, p2-7, 1995年
20) 신농본초경 석약 개수는 상품이 21개, 중품이 8개, 하품이 16개로 상품에 가장 많이 있다.
21) 쿠보 노리타다 지음, 정순일 옮김: 도교와 신선의 세계, 法仁文化社, p145, 1993年
22) 馬繼興 主編: 『神農本草經』輯注, 人民衛生出版社, p3-11, 1995年
23) 其所謂君臣佐使者 非特謂上藥一百二十種爲君 中藥一百二十種爲臣 下藥一百二十五種爲佐使 三品之君臣也 制方之妙 的與病相對 有毒無毒 所治爲病主 主病之爲君 佐君之爲臣 應臣之爲使 擇其相須相使 制其相畏相惡 去其相反相殺 君臣有序而方道 備矣

미가 재정립되었다. 張元素는 “方有君臣佐使 輕重緩急 大小反正 逆從之制也 主病者 爲君 佐君者 爲臣 應臣者 爲使 此 隨病之所宜而又贊成方而用之²⁴⁾”이라 하여 內經說을 따르면서 量의 多少로 君臣佐使를 정하는 법을 제시하였다²⁵⁾. 李杲는 『脾胃論』에서, 힘이 강한 것을 君藥으로 삼고 量이 많은 것을 君藥으로 삼는다고 하였다²⁶⁾. 王好古도 李杲의 說을 이었다²⁷⁾. 明代 李梴은 『神農本草經』의 說은 本草를 有毒과 無毒으로 나눈 것이라 評하였다²⁸⁾. 張介賓은 類經에서 “本草經有上中下三品之分 此所謂善惡之殊貴也”이라 하였다²⁹⁾.

현대에 와서도 君臣佐使는 處方構成規律의 기본이 된다. 이 規律은 證候와 治法의 需要에 근거하여 相應하는 藥物을 君藥으로 하고, 臣佐藥이나, 혹은 監制하는 藥物로 配伍한다. 즉 病證에 대한 治法이 方劑로 구현될 때, 君臣佐使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君藥, 臣藥, 佐藥, 使藥 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君臣佐使의 君藥에 대한 정리

君藥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主病之謂君”이라 하였다. 內經을 根本으로 하여 諸家의 說을 살펴보면, 君藥을 보는 견해는 크게 세 가지 說이 있다. 『神農本草經』의 上品을 君藥으로 보는 견해와, 金元代에 만들어진 量이 가장 많은 것을 君藥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處方名의 本草로 君藥을 보는 것이 그것이다.

1) 『神農本草經』의 上品藥을 君藥으로 보는 견해

여기서의 藥을 보는 기준은, 몸을 가볍게 하고 氣를 더해주며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좋은 藥이 되고, 그와 반대로 강한 藥性을 가진 藥은 治病을 위해 잠시 사용하는 藥으로 좋은 藥이 아닌 것이다. 『神農本草經』의 上品藥을 君藥으로 보는 견해는, 이러한 君藥의 의미가 方劑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說은 內經의 觀點과 차이가 있어서, 후대 醫家들 사이에 논란을 가져오는데, 역대 醫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宋代 王冰은 『神農本草經』의 說은 服餌之道라 하고 治病之道에서는 다르다고 하였다. 成無己는 『神農本草經』의 이 내용을 記述은 하였으나 여기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 處方에 適用할 때는 內經의 『素問·至真要大論』의 運氣에 따른 氣味運用法을 응용하였다. 王好古는 이 說을 소개하면서 각기 枘鑿한 바를 따르라고 하였다³⁰⁾. 『靈素節注類篇』³¹⁾에는 溫涼補瀉와

無毒有毒을 떠나서 반드시 그 病을 다스리기 좋은 것이 君이고, 그것에 相助하는 것이 臣이며, 導引하는 것이 佐使이니 이것이 制方의 정해진 이치이라 하였으며, 『神農本草經』에서 藥을 上中下三品으로 나눈 것은 氣味·良毒·優劣로써 한 것이므로, 制方의 君臣佐使와는 각각 그 義理가 같지 않다고 하였다. 明代 李梴은 『神農本草經』의 君臣佐使說을 “此以無毒有毒論君臣也³²⁾”라 하여 處方에서의 君臣佐使와 구분하였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本草經有上中下三品之分 此所謂善惡之殊貴也³³⁾”이라 하여, 역시 『神農本草經』의 君臣佐使와 處方에서의 君臣佐使를 다르게 보았다. 대체로 많은 의가들이 『神農本草經』의 說을 處方에 적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神農本草經』의 君臣佐使說이 內經과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보는 處方에서, 補藥系統이라고 불리는 方藥合編의 上統處方들은 대부분 君藥이 『神農本草經』의 上品藥이다. 이러한 觀點을 비유하자면, 축구경기나 농구경기에서 주장을 정할 때, 많은 득점을 하는 사람이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장은 전체를 잘 조율하고 운영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上品藥이 하므로 上品의 藥物이 處方에서 君藥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2) 量이 많은 것을 君藥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張元素가 처음 주장했다. 그의 저서인 『醫學啓源』에 “主病者 爲君 佐君者 爲臣 應臣者 爲使 此 隨病之所宜而又贊成方而用之³⁴⁾”라 하고, “爲君最多 臣次之 佐使又次之 藥之于證 所主停者 則各等分也”라 하여 分量에 따른 君臣佐使를 정하는 법을 밝혔다³⁵⁾. 이 說은 후에 그의 제자인 李杲, 王好古에 의해 이어졌다. 李東垣은 『脾胃論』에서 “臣藥이 君藥보다 많지 않아야 君臣의 차례가 생기고, 서로 펼치고 끌어당겨서 邪氣를 막고 질병을 제거할 수 있다³⁶⁾”고 하였다. 王好古도 『湯液本草』에 “爲君者最多 爲臣者次之 佐者又次之 藥之於證 所主同者則等分³⁷⁾”이라 하여 張元素의 說을 그대로 이었다. 이것은 이후 明清代를 거치면서 主流를 이루게 된다. 明代 李梴은 이 說을 더욱 발전시켜 君臣佐使의 分量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³⁸⁾. 清代 陳修園은 分量이 많은 것으로 君藥을 삼는 중에도 네 가지 法도를 나누어 이것으로 處方を 살펴보는 법을 보여주었다³⁹⁾. 물론

24) 金容辰 趙學俊 編譯 張元素 原著 : 懸吐完譯 醫學啓源, 周珉出版社, p188, 2003年

25) 張元素의 『醫學啓源』 “爲君最多 臣次之 佐使又次之 藥之于證 所主停者 則各等分也”

26) 李杲의 『脾胃論』에 “一法 力大者爲君.”이라 하고 “君藥分量最多 臣藥次之 使藥又次之 不可令臣過於君 君臣有序 相與宣攝 則可以禦邪除病矣”이라 하였다.

27) 王好古의 『湯液本草』 “... 主病者爲君 假令治風者 防風爲君 治上焦熱 黃芩爲君 治中焦熱 黃連爲君 治濕 防己爲君 治寒 附子之類爲君 兼見何證 以佐使藥 分治之 此製方之要也 本草 說上品藥爲君 各從宜也”

28)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合七百三十種, 此以無毒有毒論君臣也. 若制方之法, 主治病邪者爲君, 輔君分治者爲臣, 應臣向導者爲佐使.”라 하였다.

29)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 : 懸吐註釋 類經, 法仁文化社, p409, 2006年

30) 王好古의 『湯液本草·君臣佐使法』 “凡藥之所用者 皆以氣味爲主 補瀉在味 隨時換氣 主病者爲君 假令治風者 防風爲君 治上焦熱 黃芩爲君 治中焦熱 黃連爲君 治濕 防己爲君 治寒 附子之類爲君 兼見何證 以佐使藥 分治之 此製方之要也 本草 說上品藥爲君 各從宜也”

31) 補虛谷 編主 : 中國古籍珍本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p421, 1986年

32) 編著 李梴 : 新校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p344, 1994年

33)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 : 懸吐註釋 類經, 法仁文化社, p409, 2006年

34) 金容辰 趙學俊 編譯 張元素 原著 : 懸吐完譯 醫學啓源, 周珉出版社, p188, 2003年

35) 金容辰 趙學俊 編譯 張元素 原著 : 懸吐完譯 醫學啓源, 周珉出版社, p184, 2003年

36) 『脾胃論·君臣佐使法』 “不可令臣過於君 君臣有序 相與宣攝 則可以禦邪除病矣.”

37)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9期 卒業準備委員會 共譯, 原著 王好古 : 湯液本草, 大星文化社, p48, 1996年

38) 『醫學入門』 “君臣和合無反畏, 大概君藥用十分, 臣藥用七八分, 佐藥用五六分, 使藥用三四分, 外有加減, 數同佐使.”

39) 方中에 分量이 가장 重한 것을 君으로 삼는 경우, 方中에 다른 藥物들의 藥量보다 많은 몇가지 藥物 中에서 君藥을 정하는 경우, 모두 同量인데 그 中에서 君을 삼는 경우, 分量은 가장 적으면서도 힘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40) 陳修園 著 姜泰旭 譯 : 國譯 傷寒論淺註,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디딤ք, p19 1998年

藥量이 많다고 무조건 君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희귀하고 귀한 약재들이 君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犀角, 牛黃, 麝香, 硃砂 등과 같은 구하기 힘들거나 귀한 약재들이 君藥으로 작용하는 처방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많이 보는 『方藥合編』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牛黃清心元⁴¹⁾이나 朱砂安神丸⁴²⁾ 등을 들 수 있다⁴³⁾.

3) 處方名에 있는 本草를 君藥으로 보는 견해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그동안 處方에서 君藥을 정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여기에 한 가지 더 君藥을 정하는 方法을 더하고자 한다. 處方名에 있는 本草가 君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經穴이든 本草든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穴이나 本草의 특성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李梴의 醫學入門에는 本草를 풀이하면서 本草이름이 붙은 이유를 本草의 산지, 생김새의 특징, 효능 등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鍼灸穴名釋義⁴⁴⁾ 등을 보면 穴名으로 혈자리의 위치, 기능,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處方名 中에는 本草名이 포함되지 않은 處方도 많지만, 處方名에 本草名이 들어간 處方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醫學入門』의 集例에는 處方の 이름을 정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君藥으로 이름을 삼고, 中間에 臣藥이나 佐使藥을 넣어 처방을 立名한다고 하였다⁴⁵⁾. 處方名에 있는 本草로 君藥을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 하겠다. 우리가 많이 보는 方藥合編에도 本草名이 포함된 處方名이 상당히 있다. 方藥合編 醫方活套 560여 개의 處方 中에 處方名에 本草名이 있는 處方이 188개이다. 이것은 方藥合編 醫方活套 中에서 效能을 근거로 한 處方名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量이라 한다⁴⁶⁾. 이렇게 處方名에 있는 本草이름으로 君藥을 삼는 예를 보면, 龍膽瀉肝湯⁴⁷⁾같은 경우이다. 處方の 分量의 多少로 본다면, 澤瀉가 가장 많으므로 君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方은 肝膽實火와 濕熱이 經絡을 따라 上炎하거나 下注함으로 인한 증상에 清肝瀉火하고 清利濕熱한 法을 사용한 처방이다. 龍膽草는 大苦寒한 氣味로 肝膽經으로 들어가 下部의 肝膽濕熱을 제어하므로 君藥이 된다. 黃芩과 梔子가 臣藥으로 君藥을 돕고 車前子, 木通, 澤瀉가 濕熱을 下行시켜 역시 臣藥이며 柴胡가 佐助의 의미로 佐藥, 當歸와 生地黃은 苦燥함으로 인해 陰血이 損傷되는 것을 방지하여 佐藥이 되고 甘草가 調和諸藥하여 使藥이 된다⁴⁸⁾. 이 處方 외에 方藥合編에서 대표적인

예로 鹿茸大補湯(上統 三十)이나, 麥門冬湯(中統 二十九), 龍腦膏(下統 一百二十七) 등이 있다. 또한, 當歸補血湯(上統 十七)은 黃芪 五錢과 當歸 二錢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양이 많은 黃芪가 아닌 當歸를 處方名으로 삼았다. 이는 量이 많은 황기보다 당귀가 君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⁴⁹⁾. 이러한 내용을 볼 때, 處方名에 언급된 本草를 君藥을 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물론 處方名에 있는 本草라고 무조건 君藥인 것은 아니다. 使藥이나 佐藥이 處方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藥物이 표시된 處方⁵⁰⁾도 있으므로 이는 추후에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現代文獻 정리

현대의 君藥에 대한 문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陳潮祖의 『中國方劑與治法』에는 “主治藥 是針對疾病的病因, 病機, 起主要治療作用的藥物⁵¹⁾”이라 하였다. 巴坤杰의 『方劑學問難』에는 君藥은 三特點과 一中點이 있다고 하였다. 三特點이란, 君藥은 效能이 비교적 다른 藥에 비해 強하다는 것, 藥量이 상대적으로 다른 藥보다 크다는 것, 작용이 다른 藥보다 全面的이라는 것이다. 一中心은 君藥이 處方 전체에서 綜合作用的 中心藥物이라는 것이다⁵²⁾. 한국의 申信求是 『申氏本草學』에서 “君藥은 方劑 中 主要藥으로서 가장 주효가 있는 것을 말한다⁵³⁾”고 하였다. 현대 중국과 한국문헌으로 보면, ‘君藥’이란 표현도 사용하지만 ‘主治藥’, ‘主治藥’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대체로 黃帝內經의 君藥의 의미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三特點’과 ‘一中點’에서 보듯이, 조금 더 구체화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君藥에 관한 小考

君藥은 『黃帝內經』에서 主病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內經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病을 주관하는 것이 『神農本草經』의 上品藥의 특징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莊子』에 보면, 藥은 실제로 제비꽃, 도라지, 鷄雍, 豕零 같은 것들이 帝王이 된다고 하였다⁵⁴⁾. 『莊子』를 注解한 『莊子疏』에서 이 구절을 풀이하면서, “여기서의 ‘帝’는 君主이니 무릇 藥에는 貴賤이 없고 病을 治療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藥物이 그에 마땅한 것이 君主가 된다.”고 하였다⁵⁵⁾. 이는 『黃帝內經』의 君臣佐使說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張介賓의 『類經』에는 ‘主病’이라는 것은 對證의 要藥이라 하여 君藥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 주효한 藥이라 하였다⁵⁶⁾. 즉 君이 上品의 藥이 아니더라도, 病을 主治하는 藥이 君藥인 것이다. 그리고 量이 많은 것에 힘입어 主가 된다 하였다⁵⁷⁾. 이는 分量이 많은 것을 君藥으로 보는 견해를 뒷받침

41) 方藥合編 중첩 7

42) 李梴의 醫學發명의 處方인데, 2002年度 樊巧玲 主編의 方劑學에 인용된 組成으로 보았다. 이 處方에서의 朱砂의 量은 여타 다른 서적에서도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43) 牛黃清心元은 卒中風으로 인한 不省人事, 痰涎壅塞, 精神昏愴, 語言蹇澀, 口眼喎斜, 手足不遂 등의 증상을 다스리는 處方이다. 藥量으로 보면 山藥이 七錢으로 君藥이 되지만, 牛黃은 驚癇을 다스리고, 安魂定魄하여 風痰을 흡여주는 진귀한 藥으로 이 처방에서 君藥이 된다. 朱砂安神丸은 重鎮安神하고 清心瀉火하는 處方으로, 量으로는 黃連이 18g으로 가장 많다. 朱砂는 定魂魄하고 鎮心養神하며 鬼邪辟하며 구하기 어려운 귀한 藥으로 이 處方에서 君藥이 된다.

44) 周楣聲 : 鍼灸穴名釋義,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5年

45) 編者 李梴 : 新校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p3, 1994年 “又有君臣佐使 以多者爲君 合以君藥立名 中間有以臣藥 及佐使藥 立名者 悉易之.”

46) 姜惠永 : 處方命名에 대한 小考 : 方藥合編의 醫方活套를 中心으로, 방제학회지 1권1호, p63-68, 1987年

47) 韓醫科大學 方劑學教授 共編者 : 方劑學, 永林社, p193, 1999年

48) 樊巧玲 主編 : 方劑學,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p70, 2002年

49) 이런 관점은 거꾸로 補血에 대한 생리적 연구를 처방명과 軍士 좌사들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0) 方藥合編 醫方活套를 예를 들면, 麥歸益元湯(上統 14) 犀角升麻湯(中統 9) 枳朮丸(下統 23) 등이 있다.

51) 陳潮祖 : 中國方劑與治法,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28-29, 1984年

52) 巴坤杰 : 方劑學問難, 安徽科學技術出版社, p11-12, 1986年

53) 申信求是 : 申氏本草學, 壽文社, p82-84, 1988年.

54) 『莊子·徐無鬼』藥也其實 莖也 桔梗也 鷄雍也 豕零也 是時爲帝者也 何可勝言

55) 『莊子疏』는 唐代 成玄英이 지은 장자주석서로 郭象注에 의거하여 더욱 상세하게 주해한 책이다. 『莊子·徐無鬼』의 주석의 내용은 “帝 君主也. 夫藥無貴賤 愈病則良 藥物相當 故便爲君主”이다.

56) 『類經·方制君臣上下三品』 主病者 對證之要藥也 故謂之君

57) 『類經·方制君臣上下三品』 君者 味數少而分兩重 賴之以爲主也 佐君

한다. 量이 많은 것이 가장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하여 病을 主할 수 있으니 君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높고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神農本草經』의 說도 그 의미가 있으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處方名에 있는 本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處方내에서 君藥을 정할 때, 『黃帝內經』의 主病者를 유념하면서, 藥量이 많은 藥物을 먼저 보고, 『神農本草經』의 上品藥을 참고하며, 處方名內의 本草를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여겨지며, 巴坤杰이 제시한 세 가지 특징도 고려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3. 君臣佐使의 臣藥에 대한 정리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에 “佐君之謂臣”이라 하여 臣藥의 직능을 규정하였다. 黃元御의 『素問縣解』에서는 君藥과 相應하는 것이라 하였다. 臣藥은 君藥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內經에서는 奇方·偶方, 大劑·中劑·小劑를 구분하면서 君藥과 臣藥의 가짓수를 밝혔다⁵⁸⁾. 또한 君藥의 개수에 관계 없이 臣藥과 佐藥의 개수에 따라 處方이 大劑, 中劑, 小劑로 나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內經을 살펴보면, 君藥이 臣藥없이 구성된 方은 없다. 君藥과 臣藥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神農本草經』에서는 臣藥을 養性하는 藥으로 有毒無毒한 中品藥이라 하였다. 비록 中品藥으로 규정되었지만, 기능에 있어 內經과 큰 차이는 없다. 또한 역대 의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臣藥은 君藥의 효능을 強化하거나 輔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臣藥의 가짓수는 君藥보다 많은데, 君藥이 臣藥보다 많으면 藥性이 두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⁵⁹⁾. 이는 君藥이 적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處方에서 중심이 되는 藥物이 개수가 많으면 處方이 두루뭉술해져서 예리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臣藥의 藥量에 관해서 臣藥이 君藥보다 많으면 안 되고, 佐使藥이 臣藥보다 많으면 안 된다고 한다⁶⁰⁾. 張元素의 分量으로 君臣佐使를 나눈 것에서 비롯되어 나온 말이다. 藥量으로 君臣佐使를 보면 그렇겠으나, 진귀하거나 약성이 강한 藥物이 君藥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대의 臣藥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王伊明, 王云閣의 『方劑學題解』에는 “輔藥 ①輔助君藥加強治療主病或主證的藥物 ②針對兼病或兼證起主要治療作用的藥物⁶¹⁾”이라 하였다. 한국

의 裘秉哲은 『標準 臨床方劑學』에서 “臣藥 ① 君藥을 도와 主證에 대한 치료효과를 강화시키는 藥物이다. ② 兼病 혹은 兼證을 주치하는 藥物이다⁶²⁾”라고 하였고, 『方劑學』⁶³⁾에는 “臣藥 : 君藥을 輔助하여 病因이나 主證의 치료작용을 증강하는 藥物.”이라 하였다. 현대 중국 문헌과 한국 문헌을 살펴보면, 臣藥은 ‘輔藥’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며, 공통적으로 君藥을 도와 치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갖는다. 兼病과 兼證을 언급한 부분도 있다.

1) 臣藥의 역할

먼저 역대 醫家들의 說을 종합하여 臣藥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君藥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것은 內經에도 언급되어 있는 臣藥의 가장 큰 기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主證이 아닌 次證이나 兼證을 치료하는 역할이다. 이는 대개 佐藥으로 분류되곤 한다. 크게 보면, 이것도 君藥을 보조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臣藥은 또한 君藥과 더불어 處方分類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處方的 계통을 분류할 때 같은 君臣藥이 配伍되어 있으면, 동일한 處方 系列로 분류하거나, 한 處方的 變方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桂枝湯의 變方으로 桂枝加桂湯, 桂枝加芍藥湯, 桂枝加大黃湯, 桂枝加葛根湯, 小建中湯, 『千金』 內輔當歸建中湯등이 있는데⁶⁴⁾ 이 處方들에는 모두 君藥인 桂枝와 臣藥인 芍藥이 分數의 차이는 있지만, 변함없이 계속 같이 配伍되어 있다. 즉 臣藥은 君藥과 함께 處方的 分類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君藥과 臣藥과의 관계

고대 사회에서 君臣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였다. 霸道政治에서는 君臣의 관계는 上命下服의 관계이고, 王道政治에서는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⁶⁵⁾이라 하여 禮와 忠으로 相合하여야 정치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處方에서 君臣藥의 관계는 藥物七情으로 살펴볼 수 있다. 醫學入門에는 그 관계를 “君臣和合無反畏”라 하여 相反과 相畏가 없다 하였다⁶⁶⁾. 또한 方藥合編의 2味로 된 處方에서 보면, 益元散이나 連附六一湯처럼 君藥에 약간의 佐制藥이 가미된 處方を 제외한 君藥과 臣藥의 配伍에서 대부분이 相須와 相使의 관계를 갖는다⁶⁷⁾.

君藥과 臣藥이 대체로 相須 相使의 관계이지만 상호 약성이 다른 경우도 있다. 桂枝湯에서 桂枝와 芍藥의 관계가 그렇다. 桂枝는 辛甘溫하고 衛分에서 작용하며, 芍藥은 酸微寒하고 營分에서 작용한다. 이런 경우 상호 대립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작용하여 상보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桂枝湯이 營衛를 調和하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이 두 약물이 어울려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약성을 가진

者謂之臣 味數稍多而分兩稍輕 所以匡君之不治也 應臣者謂之使 數可出入而分兩更輕 所以備通行向導之使也 此則君臣佐使之義

58) 『素問·至真要大論』 大要曰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 君二臣三, 奇之制也; 君二臣六, 偶之制也. 故曰 近者奇之, 遠者偶之, 汗者不以奇, 下者不以偶, 補上治上, 制以緩, 補下治下, 制以急, 急則氣味厚, 緩則氣味薄, 適其所至, 此之謂也. 病所遠, 而中道氣味之者, 食而過之, 無越其制度也. 是故平氣之道, 近而奇偶, 制小其服也; 遠而奇偶, 制大其服也. 大則數少, 小則數多, 多則九之, 少則二之. 奇之不去, 則偶之, 是謂重方. 偶之不去, 則反佐以取之, 所謂寒熱溫涼, 反從其病也.

59) 『丹溪心法附錄·用藥大略 新增』 “若多君少臣 少佐使則 氣力不可周也”

60) 『醫學啟源·十二. 用藥備旨 十 用藥各定分兩』 爲君最多 臣次之 佐使又次之 藥之于證 所主停者 則各等分也

61) 王伊明, 王云閣: 方劑學題解, 中國古籍出版社, p3-4, 1996年

62) 裘秉哲: 標準 臨床方劑學, 成輔社, p23-25, 1995年

63) 韓醫科大學 方劑學教授 共編著: 方劑學, 永林社, p40-43, 1999年

64) 『傷寒論 處方과 藥證』 黃煌 法人文化社, p28, 2000년

65) 論語集注卷二 八佾第三

66) 編著 李梴: 新校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p344, 1994年 “務要君臣配合, 如父子兄弟和氣, 主療同而氣味以質方, 小反小畏亦不甚拘, 若大反大畏間有同劑者, 必追蟲去積, 仍有蠶制, 乃不殺人, 非初學可及也.”

67) 尹用甲: 藥物配伍에 따른 效能의 變化和 方劑에 관한 研究, 方劑學會誌5권1호, p11-22, 1997年

약물이 배합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처방은 상한론에 많이 있다. 특히 君臣간에 서로 다른 藥性을 가지면서 상보적인 작용을 하는 배합은 麻黃杏仁甘草石膏湯⁶⁸⁾ 茯苓甘草湯⁶⁹⁾ 芍藥甘草附子湯⁷⁰⁾ 黃連湯⁷¹⁾ 등에서 볼 수 있다⁷²⁾. 또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약합편의 처방에도 이러한 관계를 갖는 처방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4. 君臣佐使의 佐藥에 대한 정리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에 君臣佐使를 언급한 구절에는, 臣藥에 應하는 藥을 使藥이라고 한 내용 외에 佐藥을 언급한 구절은 없다. 그러나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에 다른 구절을 보면 각 六氣의 太過不及, 勝復에 따른 병증에 대하여 處方을 氣味로 구성하면서 佐藥의 味가 나온다. 그리고 『神農本草經』에는 佐藥을 下品の 藥으로 病을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⁷³⁾. 金元대의 李杲는, 兼證이 있을 때 佐藥이나 使藥으로 나누어 다스리라 하였다⁷⁴⁾. 李梴의 『醫學入門』에는 佐藥의 용량을 君藥의 절반 정도로 한다고 하였다⁷⁵⁾. 明代 何柏齊는 『醫學觀見』에서 “與君相反而相助者 佐也”라고 하여 佐藥이 相反, 相助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景岳全書』에는 佐使藥을 사용하는 법이 있다. 『景岳全書·第十一卷 非風』에 脈絡이 不通하는 이유에 風·熱·濕·燥·虛 등이 있는데, 각각에 따른 治法과 佐使에 사용하는 藥物이 제시되어 있다⁷⁶⁾.

현대문헌을 살펴보면, 王伊明, 王云閣의 『方劑學題解』에는 “佐藥 ①佐助藥, 配合君藥和臣藥可強治療作用. ②佐制藥, 消除或減弱君臣藥的 毒性, 或能制約君臣藥 峻烈之性的藥物 ③反佐藥, 病重邪甚, 可能拒藥時, 配用與君藥性味相反而又能在治療中起相成作用的藥物⁷⁷⁾”이라 하여 세 가지로 그 작용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劉杰은 『中國八卦方陣』에서 “君臣을 調節하는 것이 佐藥이다. 혹은 君을 보필하거나, 혹은 臣을 보필하여 方劑의 主攻방향으로 協調한다⁷⁸⁾”고 하였다. 한국 문헌을 보면, 尹吉榮의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는 “佐藥 : 藥物의 毒性을 消滅시키는 藥物 또는 兼證을 治하거나 反佐가 되는 藥物⁷⁹⁾”이라 하였고, 尹用甲의 『東醫方劑와 處方解說』에는 “佐藥 ① 佐助作用 - 兼證 또는 副次的으로 중요한 證狀을 治療하는 藥物을 말한다. ② 佐制作用 - 君臣藥의 藥性이 너무 峻烈하거나 毒性이 있을 때 이

를 制約하기 위하여 構成되는 藥物을 말한다. ③ 反佐作用 - 病의 證狀이 重할 경우 藥物에 대한 拒否反應이 나타나므로 主治藥의 藥性和 相反된 藥物을 사용하여 服用이 容易하도록 하며, 이러한 것을 藥物反佐라 한다⁸⁰⁾”라고 하였다.

현대의 중국과 한국 문헌을 종합해 보면, 佐藥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 첫째는, 佐助作用으로 君藥이나 臣藥의 藥性을 增強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主證 이외의 次證이나 兼證을 치료하기도 한다. 둘째는, 佐制作用으로 君藥의 毒性이나 峻烈한 성질을 제어하고, 副作用을 억제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성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는, 反佐作用으로 병증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拒格현상을 막고자 사용한다.

1) 佐藥의 역할

佐藥은 내경에서는 六氣의 太過不及과 勝復에 따라 운용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송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좌약의 개념은 보다 확충되었다. 여기에 佐助, 反佐 등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현대의 佐藥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佐藥은 후대로 오면서 처방의 가미와 관련성이 깊어진다. 가미를 할 때, 기존 처방의 君臣藥에 佐藥이나 使藥을 달리하여 처방이 작용하는 방향이나 부위 또는 경락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다. 張景岳은 風, 寒, 熱, 濕, 虛에 따라 경락이 막히니 佐使法이 같지 않음을 말하고 그 예를 들고 있다⁸¹⁾⁸²⁾. 佐藥이나 使藥이 경락과 밀접함을 알게 해준다. 또한 風寒濕熱 등 六氣를 다스리는 것과 유관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내경의 佐藥의 의미와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특히 調和諸藥의 의미를 갖는 使藥과는 달리 兼證 治療作用도 갖고 있는 佐藥은 치료의 정밀함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로 볼 때, 佐藥은 君臣藥에 비하여 귀경에 관련성이 높으며, 목표로 하는 증상도 六氣적인 면이 많다고 하겠다. 佐藥은 이러한 특성으로 佐助, 佐制, 反佐등의 작용을 하여, 方劑의 목표와 방향을 뚜렷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2) 군약과 좌약의 관계

何柏齊는 佐藥이 君藥과 相反, 相助한다고 하였다. 佐藥의 藥性이 君藥의 藥性和 비슷할 때는 보조하는 의미로 君藥과 相須, 相使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君藥의 藥性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佐藥이 君藥의 藥性和 반대일 때는, 君藥과 相畏 相殺의 관계를 갖는다⁸³⁾. 이를 藥性이 서로 다른 君藥과 臣藥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臣藥이 君藥과 다른 부분에서 작용하여 상보작용을 하는 것과는 달리, 佐藥은 君藥이 작용하는 곳에서 같이 작용하여 君藥의 약성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君藥과 다른 부위에서 작용하여 목표부위 이외에서 작용하게 될 君藥의 작용을 제어해준다⁸⁴⁾. 이것은 佐藥이 君藥을 꺾어 치료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방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68) 麻黃杏仁甘草石膏湯은 清肺熱이 주가 되므로 石膏가 君藥이 되고 麻黃이 臣藥이 되어 清肺시키는 한편 宣肺시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9) 茯苓甘草湯은 茯苓 桂枝 甘草 生薑으로 구성되었는데 茯苓이 君藥이 되고 桂枝가 臣藥이 되어 水停心下, 厥而心下悸를 다스린다.

70) 芍藥甘草附子湯은 太陽表證誤汗으로 陰陽兩虛하여 汗出誤汗 肢攣急 脈沈細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芍藥과 附子が 서로 상보관계를 갖는다.

71) 黃連湯은 上熱下寒으로 腹痛欲吐하는 사용하는 처방인데 黃連이 君藥이고 乾薑이 臣藥이 되어 상보작용을 한다.

72) 앞의 처방에 대한 해설은 傷寒論湯證論治(李文瑞 : 傷寒論湯證論治, 醫聖堂, p90, p233, p254, p347, 1993년)를 참조하였다.

73) 『神農本草經』, “下藥一百二十種爲佐使 主治病以應之 多毒不可久服 欲除寒熱邪氣 破積聚有疾者 本下經, 下品藥性 專主攻擊 毒烈之氣 損損中和 不可常服 疾愈則止”

74) 李杲의 『用藥心法』 “兼見何證 以佐使藥分治之 此製方之要也”

75) 『醫學入門』, “君臣和合無反畏, 大概君藥用十分, 臣藥用七八分, 佐藥用五六分, 使藥用三四分, 外有加減, 數同佐使.”

76) 張介賓 : 校勘 景岳全書, 鼎談, p198, 1999년

77) 王伊明, 王云閣 : 方劑學題解, 中國古籍出版社, p3-4, 1996년

78) 劉杰 : 中國八卦方陣, 靑島出版社, p113-115, 2002년

79) 尹吉榮 :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成輔社, p234-235, 1983년

80) 尹用甲 :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醫聖堂, p25-27 1998년

81) 蓋其脈絡不通 皆有血氣 血氣兼證 各有所因 如因於風者必閉鬱 因於寒者必凝澁 因於熱者必乾涸 因於濕者必壅滯 因於虛者必不運行 諸如此者 皆能阻滯經絡 此佐使之法所以亦有不同也.

82) 張介賓 : 校勘 景岳全書, 鼎談, p198, 1999년

83) 예를 들면, 많은 처방에서 사용되는 반하와 생강의 配伍나, 大黃附子湯에서의 大黃과 附子등이 있다.

84) 방약합편에 濟川煎(上統78), 橘皮竹茹湯(中統57), 白虎湯(下統7) 등이나 半夏瀉心湯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록 하는 것이다.

5. 君臣佐使의 使藥에 대한 정리

使藥은 佐藥과 그 개념이 혼잡되어 왔다. 그러나 佐藥과 구별하여 使藥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引經藥과 調和諸藥의 개념이라 하겠다. 최초의 기록을 보면, 『黃帝內經 素問·至真要大論』에 “應臣之謂使”라고 하였다. 臣에 應하는 使令의 의미이다. 『神農本草經』에는 “下藥一百二十種爲佐使 主治病以應之 多毒不可久服 欲除寒熱邪氣 破積聚有疾者 本下經. 下品藥性 專主攻擊 毒烈之氣 傾損中和 不可常服 疾愈則止”라고 하여 病을 主治하는 藥이라고 하였다. 또한 毒性이 強하여 오래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延年益壽하는 道家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처방에서는 그 의미가 약하다. 引經藥은 金元時代로 접어들면서 藥物을 藏府에 따라 나누는 과정에서 歸經의 개념과 함께 생긴 개념이라 여겨진다. 喻昌은 『醫門法律』에서 “引經及引治病之藥 至於病所者使也”라 하고, “有毒者多爲使”라고 하였다.

현대문헌을 살펴보면, 『中醫方劑臨床手冊』에서는 “使藥爲引經藥, 或爲調和藥性之藥⁸⁵⁾”이라고 하였고, 한국의 尹用甲은 『東醫方劑와 處方解說』에서 “使藥 ① 引經作用: 主病에 대한 藥物이 病所에 이르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藥物을 말한다. ② 調和作用: 各 方劑構成藥物에 대한 氣味 즉 藥效나 맛의 調和를 이루기 위하여 使用되는 藥物으로써 各 處方에서 生薑, 大棗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된다⁸⁶⁾”라고 하였다. 『方劑學』에는 “使藥: 두가지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 ① 引經: 方中의 모든 藥들이 病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藥物 ② 다른 藥物의 偏性을 調和시키는 것⁸⁷⁾”이라고 하였다.

현대의 중국과 한국의 문헌을 보면, 使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處方내의 藥物이 病所에 도달하도록 하는 引經藥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處方내의 藥物의 偏性, 毒性, 副作用을 방지시키는 調和시키는 의미가 있다.

1) 引經藥으로서의 使藥

引經藥은 內經에는 없는 개념이다. 內經에는 方劑構成이 運氣의 氣味論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굳이 引經이란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引經藥은, 金元代로 오면서 藥物을 12藏府經脈으로 나누면서 歸經의 개념과 결부되어 출발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張元素의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張元素의 제자인 李杲의 『珍珠囊』, 王好古의 『湯液本草』에서 내용이 더욱 확충되고 구체화 되었고, 이후 明代 李時珍의 『本草綱目』, 李梴의 『醫學入門』, 清代 張山雷등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후대로 갈수록 引經 및 歸經의 내용은 널리 사용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本草書나 方劑書에 언급이 되고 있다.

引經藥으로 작용하는 使藥은 君藥의 작용방향을 결정해준다. 비교적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특성을 갖는 君藥도 자체적으로 작용방향과 부위가 있다. 이에 더하여 使藥이 같이 配伍되어 君

藥의 작용 방향이나 부위를 더욱 구체화시킨다.

2) 調和藥으로서의 使藥

調和藥은 病證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藥性으로 인하여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해주고, 치우친 藥性으로 인해 脾胃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약물간에 상호조화를 이루어 준다. 調和藥의 대표적인 藥物은 甘草이다. 丸劑인 경우에는 蜂蜜, 攻下劑인 경우에는 大棗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⁸⁸⁾. 이들은 대개 脾胃를 잡아주는 藥物이다.

6. 君臣佐使의 종합적 의의

處方에서 君臣佐使는 方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處方에서 君臣佐使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된다. 그 장점을 몇 가지로 분류해보겠다.

1) 處方の 해석의 편리성

處方에서 君臣佐使의 次序를 구별함으로써 處方の 작용범위, 방향성, 목표 등이 분명해진다. 잘 모르는 處方을 보더라도 本草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君臣佐使에 맞추어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處方の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예로 傷寒論의 대표적인 處方인 桂枝湯을 보자⁸⁹⁾.

桂枝湯은 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가지 藥物이 각각 기능을 발휘하고 도와주어 處方の 본래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다. 發散風邪는 반드시 辛味를 위주로 하여야 하므로 辛熱한 桂枝가 君藥이 된다. 芍藥은 味苦酸微寒한데, “風淫所勝 平以辛 佐以苦 以甘緩之 以酸收之”라 하였으므로 苦味와 酸味를 가진 芍藥이 臣이다. 또한 風邪는 辛涼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므로 芍藥의 微寒한 氣가 그에 해당된다. 甘草는 甘平하여 “以甘緩之”에 해당되어 佐藥이 된다. 生薑은 辛溫하여 “風淫於內 以甘緩之 以辛散之”라 하였으므로 風邪를 흩어주는 역할을 하며, 大棗는 甘溫하여 “以甘緩之”에 해당된다. 生薑과 大棗는 脾의 津液을 행하게 하고 營衛를 조화롭게 하므로 使藥의 의미를 가진다. 본 處方은 5가지 藥物이 서로 도와 表部의 風邪를 날리고 營衛를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君臣佐使에 맞추어 運氣治法과 本草의 氣味厚薄, 寒熱溫涼, 浮沈升降으로 처방을 풀어보면 각 處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處方응용범위의 확장

기본적인 主治症은 주로 方이 성립될 때 그 方을 만든 사람이 목표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處方이 主治症으로 표시된 증상에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醫者の 뜻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主治症 이외의 상황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處方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君臣佐使는 處方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한 處方の 君臣佐使를 알면 處方사용이 좀 더 원활해진다. 역으로, 같은 主治症을 갖는 여러 가지 處方들이 있더라도 君臣佐使法을 이용하면 각각의 處方을 구별하여 사용하기 어렵지 않다.

85) 上海中醫學院中藥系 方劑學 中藥學 教研組編: 中醫方劑臨床手冊,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6-7, 1987年

86)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醫聖堂, p25-27, 1998年

87) 韓醫科大學 方劑學教授 共編著: 方劑學, 永林社, p40-43, 1999年

88) 徐富一: 方劑構成에 있어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研究, 방제학회지 9권1호, p83-103, 2001年

89) 成無己의 傷寒明理藥方論과 2002年度 樊巧玲 主編의 方劑學을 중심으로 풀이하였다.

『東醫寶鑑』 「雜病篇·卷四·內傷」에 같은 勞倦傷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升陽順氣湯, 調中益氣湯, 升陽益胃湯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內傷諸證과 勞倦, 勞役으로 인한 證狀을 다스린다.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脾胃氣를 補強하는 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處方 이름이 다르듯이 構成이 조금씩 다르다. 藥物의 氣味厚薄과 寒熱溫涼과 浮沈升降만으로도 구별해 볼 수 있으나, 君臣佐使의 틀로 살펴보면, 차이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다⁹⁰⁾.

補中益氣湯은 勞役太甚하거나 혹은 飲食失節하여 身熱而煩하고 自汗倦怠한 것을 다스린다. 脾胃가 虛하면 肺氣가 먼저 끊어지니 黃芪가 그것을 막아 君藥이 된다. 人蔘이 元氣를 돕고, 炙甘草가 甘溫하여 火熱을 瀉하여 濕熱·煩熱을 다스리며, 白朮이 苦甘溫하여 胃中熱을 없애니, 人蔘, 炙甘草, 白朮이 臣藥이 된다. 當歸는 和血脈하고, 陳皮는 胸中의 氣를 이롭게 하여 陽氣가 上升하는 것을 도우니 佐藥이 된다. 升麻와 柴胡는 苦平하고 味之薄이니 胃中의 清氣를 올리고, 黃芪와 甘草의 甘溫한 氣味가 上升하도록 끌어당기며, 衛氣의 散解를 도와 表를 實하게 하고 帶脈을 풀어주니 使藥이 된다.

益胃升陽湯은 補中益氣湯에, 苦甘溫한 白朮을 君藥으로 삼아 더욱 胃氣를 이롭게 하고, 甘溫한 神麴이 臣藥으로 들어가 消食하고 健脾緩胃, 化滯調中하여 胃氣에 초점을 두었다.

升陽順氣湯은 補中益氣湯에, 辛味인 半夏와 草豆蔻가 臣藥으로 들어가 胃의 寒氣를 몰아내고, 佐藥으로 神麴이 들어가 消食하여 胃氣를 이롭게 한다. 그리고 苦辛寒한 黃柏이 佐藥으로 들어간다.

調中益氣湯은 補中益氣湯의 白朮 대신 蒼朮이 臣藥으로 들어가 補中焦·除濕보다는 除上濕·發汗으로 작용하여 黃芪를 돕는다. 그리고 苦辛한 木香이 들어가 壅氣를 통하게 하여 藥力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돕고, 脾胃氣를 補하여 佐使藥이 된다.

升陽益胃湯은 補中益氣湯에, 半夏가 들어가서 脾胃에 쌓여 있는 濕痰을 내린다. 이것은 濕熱之聖藥인 黃芪, 人蔘, 炙甘草의 기능을 보조하니 臣藥이 된다. 羌活, 獨活, 防風이 들어가 막혀있는 것을 풀어 陽氣가 퍼지게 하니 佐藥이 되고, 白芍藥은 濕氣를 안정시키고 津液을 보태주며 小便을 行하게 하니, 함께 더해진 茯苓, 澤瀉와 더불어 내부의 濕熱을 小便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白芍藥, 茯苓, 澤瀉는 佐藥이 된다. 여기에 黃連이 들어가 上部의 濕熱을 내리 것을 도와주어 역시 佐使藥으로 작용한다. 枳三棗二가 들어가 胃氣를 안정시키는 調和藥으로서 使藥이 된다.

이렇게 각 處方의 차이를 君臣佐使에 맞추어 풀이해 보면, 本草 자체의 성질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方劑 加減의 용이성

君臣佐使를 잘 안다면, 加減이 조금 더 자유롭다. 이것 역시 君臣佐使를 통해 그 方劑의 작용범위, 방향성, 목표 등을 분명히 알았으로써 가능하다. 臣藥이나 佐藥을 바꿔서 君藥의 힘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며, 使藥을 바꿔서 작용범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醫學心悟의 加味香蘇散을 통해 몇 가지 예를 간단히 보겠다. 加味香蘇散의 本方은 紫蘇葉이 君藥, 陳皮와 香附子가 臣藥, 荊芥·秦艽·防風·蔓荊子가 風寒의 제거를 돕는 佐助藥이 되고, 血分을 돕는 川芎과 胃氣를 돕는 生薑이 佐使藥이 되고, 炙甘草가 使藥이다. 여기에 外感의 前症으로 頭腦痛이 심하면 辛味인 羌活과 藜白을 넣어 足太陽經과 足陽明經의 寒邪를 몰아내는 佐使藥으로 사용한다. 自汗惡風에는 桂枝와 白芍藥을 佐藥으로 삼아 이 處方에서 약간 부족한 營衛分野를 補強해준다. 四肢厥冷하고 中寒의 증상이 있으면 乾薑과 肉桂의 類로 佐한다. 君臣佐使의 틀을 바탕으로 加減法을 사용하면, 한 처방을 보다 다양한 증상에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가감법을 응용하기도 쉬워진다.

4) 創方의 원리

君臣佐使는 方劑의 構成原理로 立方의 原理이기도 하다. 病因과 證狀에 따라 處方을 구성할 때 君臣佐使의 각각의 기능을 유념하면서 구성해야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單味나 2味, 3味로 病邪를 다스릴 수도 있으므로 君·臣·佐·使 네 종류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立方의 原理인 君臣佐使를 이해한 상태에서 創方을 해야 처방이 온전해 질 수 있다. 만일 君臣佐使法에 맞지 않게 處方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민간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君臣佐使가 處方構成의 根幹인 만큼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方法으로 지금도 무수한 處方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臨床에서 創劑되어 활용되고 있다.

결론

이미 君臣佐使는 많은 方劑學과 本草學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만큼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며, 또한 간과하기도 쉽다. 우리는 處方을 보면서 각 藥物의 효능이나 작용범위등으로 쉽게 處方을 단정 지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處方의 가장 기본인 君臣佐使法으로 處方을 바라볼 때, 處方의 차서와 짜임이 보다 쉽게 보여지며, 그 處方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君臣佐使에 대해 살펴보았다. 君臣佐使는 處方을 보는 기본적인 틀로 『黃帝內經 素問·至真要大論』과 『神農本草經』에 그 내용이 나온다. 『黃帝內經』에서는 處方을 중심으로 君臣佐使를 보았으며, 『神農本草經』에서는 藥物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보았다. 君藥은 處方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病을 主하는 藥으로, 『神農本草經』의 上品藥이라는 說과 分量이 가장 많은 藥이라는 說이 있다. 또한 處方名에 있는 本草를 君藥으로 고려해 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臣藥은 君藥을 돕는 藥으로, 君藥의 藥性을 強化하거나 補助하고, 兼證이나 次證을 주치하기도 한다. 또한 臣藥은 君藥과 함께 方劑 구분의 기준이 되며, 君藥과 臣藥은 相須·相使의 관계, 혹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 佐藥은 『黃帝內經 素問·至真要大論』에 처음 나오며, 그 기능은 佐助, 佐制, 反佐의 세 가지가 있다. 使藥은 臣藥에 應하는 藥으로, 引經作用과 調和諸藥作用을 가지고 있다. 君臣佐使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處方의 해석이 용이해지고, 각 處方의 기본 주치증 이외의 증상에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으며, 方劑의 加減이 보다 자유롭게 된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方劑를 법도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君臣佐使의 의미를 염두하면서,

90) 처방의 해설은 東醫寶鑑 原文과 李杲의 脾胃論을 바탕으로 하였다.

처방을 보다 세심히 파악하여, 처방을 사용하고, 또한 응용하며, 보다 짜임새 있는 처방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보다 더 處方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藥物七情, 七方, 十劑, 本草의 性味歸經 등을 더욱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標點校勘 漢書 (全) 景仁文化社編
2. 韓醫科大學 方劑學教授 共編著. 方劑學. 永林社, 1999.
3. 陳潮祖. 中國方劑與治法.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4.
4. 王貴元 著. 說文解字 校箋. 學林出版社, 2002.
5. 이돈주. 한자·한어의 창으로 보는 중국고대문화. 태학사, 2006.
6. 編著 李旼. 新校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94.
7. 金達鎬. 黃帝內經 注解補註 素問 全. 醫聖堂, 2001.
8. 馬繼興 主編. 「神農本草經」輯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신영일, 김선호. 懸吐完譯 傷寒明理論. 周珉出版社, 2003.
10. 申鉉沂, 尹暢烈 指導, 李杲 原著. 東垣 脾胃論 譯釋. 大星文化社, 1999.
1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9期 卒業準備委員會 共譯, 原著 王好古. 湯液本草. 大星文化社, 1996.
12. 金容辰, 趙學俊 編譯 張元素 原著. 懸吐完譯 醫學啓源. 周珉出版社, 2003.
13. 原著 黃度淵. 對譯 脈證·方藥合編. 南山堂, 2000.
14. 張介賓. 校勘 景岳全書. 鼎談, 1999.
15. 莊子. 안동림. 현암사, 1992.
16. 쿠보 노리타다 지음, 정순일 옮김. 도교와 신선의 세계. 法仁文化社, 1993.
17.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 懸吐註釋 類經. 法仁文化社, 2006.
18. 陳修園 著, 姜泰旭 譯. 國譯 傷寒論淺註.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디담컴 1998.
19. 楠虛谷 編主. 中國古籍珍本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p 421, 1986.
20. 巴坤杰. 方劑學問難.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6.
21. 上海中醫學院中藥系 教研組編. 中醫方劑臨床手冊.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22. 李文瑞. 傷寒論湯證論治. 醫聖堂, 1993.
23. 王伊明, 王云閣. 方劑學題解. 中國古籍出版社, 1996.
24. 劉杰. 中國八卦方陣. 青島出版社, 2002.
25.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1988.
26. 裴秉哲. 標準 臨床方劑學. 成輔社, 1995.
27.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醫聖堂, 1998.
28. 黃煌. 傷寒論 處方과 藥證. 法人文化社, 2000.
29. 朱震亨原著 方廣 篇主. 新編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1993.
30. 金赫濟 校閱. 懸吐釋字具解 論語集注. 明文堂, 1999.
31. 編譯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原著 許浚. 原本 東醫寶鑑 「新增版」. 南山堂, 2004.
32. 金相贊 외 5人. 方劑學(改正增補版). 永林社, 1999.
33. 樊巧玲 主編. 方劑學.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2.
34. 姜惠永. 處方命名에 대한 小考 : 方藥合編의 醫方活套를 中心으로 방제학회지 1(1):63-68, 1987.
35. 김선희, 김호진. 方劑構成原理인 君臣佐使論에 대한 文獻的 考察. 동서의학 6(1):5-21 1991.
36. 尹用甲. 藥物配伍에 따른 效能의 變化와 方劑에 관한 研究. 방제학회지 5(1):11-22, 1997.
37. 徐富一. 方劑構成에 있어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研究. 방제학회지 9(1):83-103, 2001.